



호플러스  
즉시항고 임박  
마지막 생존승부  
니



Life

셀트리온  
'짐펜트라'로  
질주 시동  
L2



# “국경 허문 오페라 무대... 국가·세대 잇는 문화가교 꿈꾼다”

## 인터뷰

### 안주는 연출가

“오페라는 영화나 드라마와는 다르다. 영화나 드라마는 한번 잘 찍으면 ‘오케이!’하고 끝나지만 오페라는 내일도, 그다음날도 계속해야 한다. 작가에게 그 나름의 문체가 있듯이 연출가에도 ‘극체(劇體)’라는 것이 있으며, 이것이 없으면 오페라와 같은 살아 있는 공연은 산으로 간다.”

‘극체’라는 단어는 없다. 안주는 연출가가 만든 말이다. 더 따져 묻지는 않았지만, 그는 연출가의 ‘그립’을 더 중시하면서도 배우의 개성과 융화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연출가로 큰 돈을 벌고 싶은 뜻은 없다, 나만을 위한 공연은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 그리고 냉철하면서도 꽤 낙천적이다. 그야말로 ‘심장이 뛰면 하는 스타일’이다. 어쩌면 그런 태도가 이질적인 문화와 세대를 연결하는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지도 모르겠다.

연출가 안주는에게 오페라는 특정 관객들을 위한 ‘고립’의 공간만도 아니다. 소통이자 연결의 장이다. 그의 인생 키워드도 ‘연결’이다. 공연은 배우와 관객을 연결하는 일이고, 예술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일이며, 국제교류는 국가와 국가를 이어주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한국인 최초 몽골 문화대사, 이탈리아 시칠리아 타 오르미니 고대극장에서 오페라 ‘아이디’를 총연출한 한국 여성 최초 연출가, 한국·이탈리아와 한국·몽골, 한국·키르기스스탄 수교 기념 공연 총감독...

안주는 연출가의 ‘인생 극체’가 궁금해 그의 인생 여정을 엿봤다.

#### ◆ ‘빛나는 사람’보다 ‘빛나게 하는 사람’

“만약 오페라 연출을 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했다면 유지한 것만 생선했을지도 모른다. 주변에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취합하고 새로운 보탬을 더하면 큰 실패는 안 한다.”

안 연출가는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시작해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성악을 전공한 성악가였다. 팝페라 가수로 활동하며 음반도 냈고 디너콘서트도 열 만큼 인정받는 성악가였다.

하지만 러시아 오페라극장에서 수년간 공연 제작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진로를 틀었다. 무대 뒤에서 공연 하나가 완성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한 사람의 노래보다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가 함께 만들어내는 무대의 힘을 배웠다.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성악가보다 연출가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안 연출가는 “내가 노래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무대에서 빛날 때 더 큰 시너지가 나는 것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그가 연출가라는 직업을 택한 후 이미지의 중심에 ‘노트’가 있다. ‘노트’는 공연관의 직업이다. 공연을 무대에 올린 뒤, 연출가가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를 배우들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안 연출가는 “처음에는 기획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어떤 연출가는 공연이 올라가면 극장에 안 간다. 나는 공연 전에 가서 메모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장면을 뜯어보기도 한다”면서 “공연은 연출가 자신을

성악가로 공연 경험하며 연출가 길 걸어 배우·스태프 각자 자리에서 빛나게 도와

몽골출신 소프라노 열정에 도전의식 깨워 극은 통한다는 신념으로 세계무대 도전 한국-몽골 수교기념공연 성공으로 이끌어 공로 인정받아 외국인 최초 몽골 문화대사로

예술,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공공재 취약계층·시니어·어린이 위한 공연 선배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믿기에 포기할 수 없는 직업이다”라고 했다. ‘노트’는 공연 전 준비 과정부터 공연이 끝난 뒤까지 이어진다. 공연장 객석은 물론 공연장을 처음 찾는 관객의 입장 동선, 해외에서 초청한 예술가와 외교사절을 맞이하는 방식과 입장루트까지 하나하나 점검한다.

#### ◆ 문화외교, 연출의 또 다른 무대

그의 오랜 꿈이자 요즘 가장 열정을 쏟는 분야가 있다. ‘문화외교’다. 안 연출가는 “나라와 세대가 달라도 극과 극은 통한다. 우물 안에만 살면 우물 밖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우물 안에서 아주 오래 살면 우물 밖이 보인다”고 했다.

해외라는 넓은 무대로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몽골 국립오페라발레극장 소속 소프라노 엔크나란 단골 씨. 오디션 하나 보려고 이틀을 날아 한국을 찾은 그의 열정은 안 연출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동시에 하나의 물음표도 남겼다. 그를 통해 자연스럽게 몽골의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두게 된 안 연출가는 “왜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나라와 공연으로 더 자주 만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품게 됐다고 했다.

물음표는 잠자던 그의 도전 의식을 깨웠다. ‘산지미나노 국제 페스티벌’과 2024년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끈 연출 경험이라면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감도 잠시. 기획 초기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과 변수의 연속이었다. 당시만 해도 몽골대사관은 대규모 공연이 가능할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안 연출가의 노력과 끈질긴 집념은 공연을 성사 시켰다. 서울시를 수없이 찾아 관계자를 설득했고, 허락 받았다. 다음은 몽골이었다. 영화30도의 몽골. 국립오페라발레극장 관계자들조차 “공연이 될까”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무엇도 안 연출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나라와 세대가 달라도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1 한국몽골 수교 35주년 기념 공연 무대.  
2 지난 2025년 안주는 연출가가 맡은 타오르미타원형극장 ‘아이디’ 공연.  
3 지난 5월 KBS홀에서 열린 ‘서울! 실크로드를 가다’의 총예감감독으로 참여한 안주는 연출가.  
4 수혜 수호볼드(오른쪽) 주한 몽골대사와 안주는 오페라 연출가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열린 몽골문화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념으로 결국 프로젝트를 따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몽골 수교 기념 공연은 3200석을 채우며 성공적으로 막을 올렸고, 몽골 예술가와 한국 출연진이 함께 꾸민 이 공연은 양국 문화 교류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다. 몽골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안 연출가를 한국인 최초이자 외국인 최초 몽골 문화대사로 위촉했다. 몽골 문화대사는 해외에서 몽골 문화를 알리고 국제 문화교류를 이끄는 상징적인 민간 외교 역할로, 그동안 몽골인에게만 맡겨졌던 직책이다.

그는 “예술만큼 국경을 자유롭게 넘는 힘은 없다”며 “몽골의 예술을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의 클래식과 오페라, 전통예술도 몽골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을 시작으로 국가와 국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 “예술은 누군가의 특권 아냐”... 다음 세대 위한 연출 꿈꾼다

문화외교에 집중하는 지금도 안 연출가의 관심은 어린이와 시니어 공연으로 향한다. 그는 예술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이 사치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도 예술은 늘 함께 있었다”며 예술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앞선 세대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예술을 지켜왔기에 지금의 자신도 무대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더 좋은 환경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같은 철학은 공연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공연은 대부분 무료로 진행하고, 공연 좌석 일부는 장애인과 문화취약계층, 시니어 관객에게 우선 배정한다. 어린이 오페라는 한국어로 각색하고 공연 시간을 줄여 눈높이에 맞췄다. 해운대를 배경으로 플랜스와 DJ를 접목한 오페라, 3D 오페라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온 것도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고민의 연장선이다.

인터뷰 말미, 가장 좋아하는 수식어를 묻자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가수와 교수, 문화대사 등 여러 역할을 거쳐왔지만 끝내 선택한 이름은 ‘연출가 안주는’이었다.

안 연출가는 “멋있는 연출가보다 제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연출가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 국가와 국가를 잇는 연출가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 안주는 연출가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이정후, 첫 MLB 올스타 출전 불발... ‘최다 득표’ 오타니, 6번째 출전  
▲김민진·이강원·박근벌빛, 모스크바 발레 콩쿠르서 동시 정상 /사진 뉴시스

▲홍명보 선임 축협 고발 사건, ‘신속 처리’ 수심 위 권고 있었다  
▲김주형, PGA 투어 존디어 클래식 3R서 공동 27위로 하락

▲‘디펜딩 챔피언’ 시비웅테크·세계 2위 리바키나, 뮌헨 3회전 탈락  
▲브라질 안첼로티 “나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퍼거슨 경뿐”